

광주도심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공건축 설계프로젝트

Design Proposals of Public Architec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Kwangju Old City

손 승 광*
Shon, Seung Kwang

ABSTRACT

Many people think, in common that An expansion toward outer city is a development , and it can be a general trends in a new development in a growing city. But We can see many case which moving of a public building are considerate as a core element to promote the new development towards outer city, and that is a negative element of slum in central area and community making. There are many aspects to pursue sustainable urban structure of in a city, and public building is a very important element to manage deteriorate central area from social slum in a old town. In this presentation, three project, Local Authority office of Chonnam province, Kwangju Station, and Hyper Urbanity, and it shows sustainable concept of the public building as a core in a city development. The effect of the projects are expect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munity in terms of social, cultural and historical aspects.

keywords : 지속가능한 개발, 공공건축, 도시공간구조
Sustainable Development Public Building, Urban Structure

1. 머리말

도시와 건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문화의 산물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다. 도시와 건축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것이어서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는 사람들에게 추억을 가지고 있는 앨범이기도한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과 사회적 현상은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데에 익숙하여 오천년의 문화와 역사를 가꾸어 가는 데

에 무책임하여 왔으며, 그러한 면에서 우리는 소중한 우리의 문화자산을 거리낌도 없이 버려왔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해결의 매듭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생명을 가진 도시와 건축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한 영혼과 정신문화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만이 능사는 아니며, 도시와 환경을 지속적으로 가꾸어 가는 사회적으로 책임을 공감하는 가운데 기존 시가지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에 관련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던 내용에 대하여 그 개념과 의의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정회원, 동신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2.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의 개념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관한 개념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간한 Brundtland보고서(제목, Our Common Future, 1987년)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하여, 92년 리우회담을 거쳐 현재에까지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개발전략으로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 목표는 "미래세대의 후생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대대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개발"이며,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¹⁾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고전적 의미에서 개발이라는 개념에다가 '인간이 살아가는 조건으로서 환경이 건전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가치 부여', '개발에 대한 시간적 범위의 확장' 등의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것이다.

'의제21'(총 40장)에 언급된 내용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제7장), 의사결정에 있어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제8장), 토지자원의 통합적 기획 및 관리 (제10장), 민간단체의 역할강화(제27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제28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과학(제35장), 지속가능한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내체제와 국제협력(제37장),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40장)²⁾ 등을 담고 있다. 성장(growth)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고 있는 開發은 양적 또는 물리적 확장이라는 개념에 한정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개발은 성장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이 가지는 차이점을 가지는 것으로 向上과 進歩의 관념을 통합하고,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을 포함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의미는 지구의 재생산이 가능한 용량, 생산성을 유지시키고 회복하기 위한 그 시스템의

능력에 관한 문제로서, 기존자원, 즉 물리적·문명적 발전개념을 넘어서 문화적·사회적, 그리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경제성 개념의 보전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강력한 요소이다. 특히 성장과 발전의 개념을 혼돈하여 논의되는 대상 중에 도시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든 건축 활동의 집합체로서 결정되는데, 그 형성과정을 보면 도시의 공간구조계획과 공공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이 되는 계획초기부터 중요하게 작용하며, 또 성장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개념은 그 다음단계에 나타나는 건축 활동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므로 민간분야에서의 건축 활동과 도시의 공간이용을 주도하는 공공건축과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으로서 공공건축

여기에 발표하는 작품은 호남의 대표도시인 광주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제안한 내용이다. 도심지역의 노후화되어 가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지역의 당면문제를 사회적으로 다시 해석해보고, 생명이 숨쉬는 지속 가능한 개발과 건축설계를 제안하여 보았다.

프로젝트 작품으로 소개되는 내용은 동신대학 건축학부 4학년 학생들이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이라는 테마로 준비한 프로젝트로서 2002년 3월부터 준비하여 10월에 작품이 완료된 내용들이다. 제안된 작품은 공공건축물, 커뮤니티건축, 복지건축, 주거재개발, 노인건축, 주상복합개발 등 총 22개이며, 대상 부지로 선정된 장소성의 해석으로부터 사회적 해석 등 요소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설계로 제안되어 있다. 그러한 지속가능한 건축 작품 중에서 도시의 공간구조에서 세력권 형성에 강한 힘을 가지는 공공건축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1) http://www.la21.or.kr/part2/part2_1.htm

2) http://www.la21.or.kr/part2/part2_4.htm

3.1 광주역

도시중심에서 변두리로 이전된 광주역은 도시가 성장하면서 역세권형성과 그 주변의 개발로 인하여 다시 도심에 근접한 공공건축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도시를 관통하는 철로의 노선을 도시의 서쪽으로 이전시키면서 기존하는 철로가 지역간 철로로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에 기존 철로를 도시 내 철로로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녹지와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녹지로의 활용을 주장하여 폐선³⁾으로 잠정적 결정으로 기울어졌다.

이는 그 다음 단계에서 도시의 인프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존의 철로시설을 없애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발상이 그 결정의 합리성이나 효과와는 무관하게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막대한 시설자금을 불러일으키는 소모적 경제성,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그에 파급효과로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동과 건축물 용도변경을 수반하게 됨은 당연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 공공건축과 기간시설은 단순히 건축물의 노후화만이 아니라 도시공간구조에까지 깊숙하게 관련지어 진다는 과정을 예측할 수 있다.

광주민자역사 프로젝트에서는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개념으로 기존 광주역의 위치, 철로의 노선, 철로의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전략을 전제로 하여 민자역사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교통체계에서 철로교통의 상대적인 역할 증대, 도시의 지역고립으로부터

한반도와 시베리아 그리고 세계로 뻗어가는 열린 시대를 맞이하여 외부지역으로부터 도시로 관광객을 유입하는 도시의 관문, 도시민의 공공집회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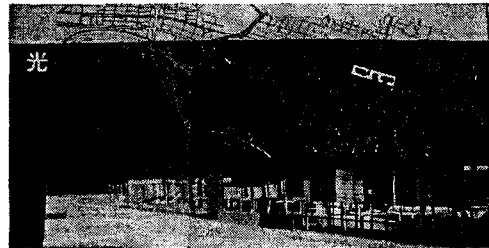


그림 1 광주역의 민자역사 개발계획

기차와 철로는 더 이상 도시교통의 지역간 경계로서 장애시설이 아니라 도시철로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복지시설로서 재설정되고, 특히 철로의 좌우를 지하도로와 입체적으로 교차시킴으로써 철로 주변의 양분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편익을 주는 역세권개발의 거점으로, 도시 철도역을 중심으로 소역세권 개발로, 광주역은 도시의 가장 화려한 공공건축으로 쾌적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었다. 지하도로와 역의 앞과 뒤의 진입구로서 멈추지 않는 교통체계를 구현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설계개념은 기존의 광주역의 위치를 고수하는 데에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되며, 기존의 도시구조를 존중하는 역세권발전의 핵심이 된다.

그러한 설계개념이 제안되지 않을 경우, 광주역은 광주의 가장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기존의 도시구조의 대이동이 이루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시의 상당부분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대이동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3.2 입체도시, 경전철 역사계획

철로는 도시의 중요 동선을 차지한다. 지역철도, 즉 도시와 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는 철도에 근접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철도의 기능이 정지된 이후에 철로 주변의 주민들은 철로

3) 폐선의 의미는 원래의 철도기능, 즉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철로로서의 기능정지인지, 아니면 도시 내 철로기능까지를 포함한 지역철로로서 기능을 정지하는 총체적인 의미인지 그 가능성의 범위에 대한 정의와 공감대 없이 폐선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의사결정의 혼란을 가져왔다.

4) 박형민, 임어진(2002), 광주민자역사,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 작품전시회, 동신대학교

를 걷어내고 길을 만드는 것이 혜택을 얻는 방안이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통이 일제 때에 개설한 철도에 비하여 서울과 몇 도시를 제외하고는 철로길이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으며, 교통의 발전 또한 자동차위주의 도로교통에 의존하여 기존 철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소홀한 점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철도에 인접한 주민들이 제기한 바, 철로의 좌우지역을 갈라놓아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으로 폐선과 활용의 토론이 심각하게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폐지론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집단민원으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철로를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그 기능과 구조를 존중하자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으로 사회적으로 그 주장을 전달할 목소리가 한없이 작을 수밖에 없었고, 철로가 가지는 장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 설계안은 철로가 지역을 단절시킨다, 소음만을 유발시킨다, 도시에 기여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개선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입체화 도시개념과 철로주변의 재정비개발, 경전철을 활용한 도시철로로의 활용 등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 설계안은 철로를 폐선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해결을 입체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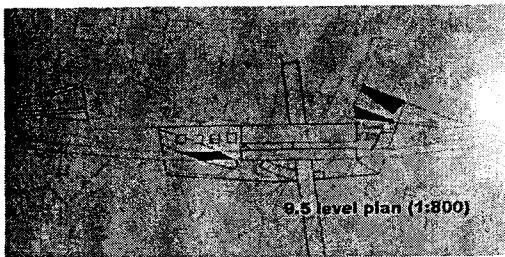


그림 2 경전철 역사위 입체도로 연결

광주에 지하철 5호선 계획중에 1호선 건설과정에서 건설비 부담문제, 운영적자 등의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지하철운영체계가 경전철방식으로 전환하여 검토되고, 교통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하여 3호선까지로 축소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폐선으로 결정되었던 선로이용이 경전철 방식으로 도시 철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되고 있어서 이 설계안이 구체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3 전남도청

전남도청은 광주가 전남의 대표도시로서 자리하여 왔던 1896년부터 100여 년 동안 도청소재지로서 인구 2만7천명의 소규모 도시로부터 140만 명의 광역시로 발전하여 온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도시의 중추기관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행정기능의 공공건축을 이전하려는 의도가 5.18이라는 현대사에 큰 획을 그었던 광주에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전남도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5.18기념관을 지어야 한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약속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전남도청을 자치단체구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그림3의 상부그림)

도청이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공공건축물 자체만의 이동이 아니라 행정도시 구조를 가지는 광주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도시공동화를 가속화시키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며, 도시의 중심 공공시설의 이동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음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의 틀이라는 관점에서 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전남도청 + 5.18 기념관 프로젝트는⁵⁾ 현대사의 한 획을 긋는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기념비적인 명예회복의 시도가 공공건축물의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도청의 기능과 새로운 기념비적인 공간의 공존이 이루어지는 구성으로서 행정기관이 가지는 장소성(그림3의 상부는 현재의 도청사임)

5) 이민주(2002), 전남도청 + 5.18기념관,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 작품전시회, 동신대학교

과 그 주변이 형성된 시간적, 공간적 지속성을 가지는 방안으로 도청청사와 5.18기념관이 공존하는 청사계획안을 조성하여 기존의 공공건축물과 그 주변, 그리고 도시 전체적으로 형성된 공간구조를 존중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안에는 도심을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위에 도청으로 진입하는 교통망과, 지하에는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조성하여 자동차시대에 대비하고, 도청광장에 면하는 도청건물은 5.18기념관으로, 그 주변은 기념광장으로, 그리고 노후화되고 협소한 행정청사는 성벽으로 이용되었던⁶⁾ 터위를 통로로 존중하면서 도청 건물을 재건축하여 도시의 사회경제적 공간구조의 지속적인 형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3의 하부는 새로운 배치안으로서 대안)

4. 맺음말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공건축물의 도시 내 공간구조의 재평가과정은 필수적이며 이는 도시사회, 지역사회의 발전모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처럼 광주의 경우에서도 경제개발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성장 과정에서 개발위주의 성장일변도의 추세는 기존 건축물, 공공건축물 그리고 기존시가지가 지속적으로 가꾸어지기 보다는 새로운 건축물과 지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대상으로 생각되어 철거대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하나의 사회적 병리현상이면서도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척도로서 잘못 인식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중에 공공건축물과 도시기반시설을 도시의 성장에 따라 쉽게 옮겨 다니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공공시설을 따라 옮겨 다니는

6) 삼국시대부터 조성되어 사용되었던 읍성으로 현재의 도시구조에 골목길로 반영되어 있으며, 길의 폭이 3미터 이내의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로이다. 이 설계안에서도 성벽 때문에 형성된 길을 도로로 이용되도록 하여 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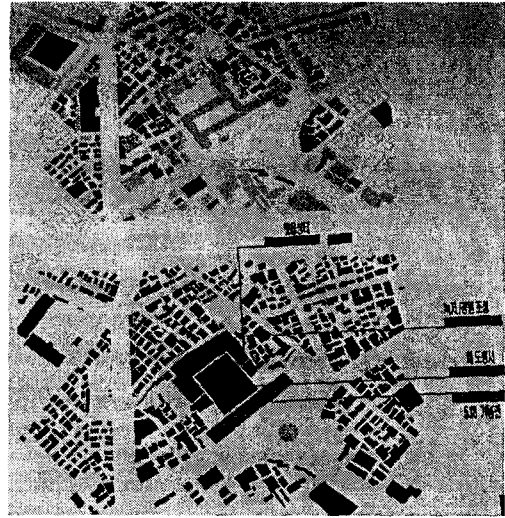


그림 3 전남도청사(상부)와 개선안(하부) 개념비교

도시공간구조 형성과정에서 파생되는 도시경제, 국가적 비용지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그러한 면에서 기존의 도시구조를 존중하면서 개발하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은 그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피하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사회와 도시공간구조에 대해 소지역주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대한 논란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구호에 포장되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안정된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러한 점에서 성장일로에 있는 도시에서 공공건축물을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장소적 의미에서 기존에 형성된 도심에 있고 노후화되어 가는 도시를 소모적 대상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구조로 만드는 열쇠가 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광주는 우리나라의 여타의 도시에서처럼 해방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개발과 기존도시의 관리문제에 대한 균형이 여전히 논란대상이며, 도시성장과정에서 신도시개발과 기존도시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도시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관점을 견지한 3개의 공공건축프로젝트는 광주에서의 안정된 지역사회

회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http://my.netian.com/~hope08/sustain.htm>

<http://www.enviworld.co.kr/jarho/gen/iusnun.htm>

http://www.la21.or.kr/part2/part2_4.htm

이성호(2002), 입체도시 hyper urbanity ,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 작품전시회, 동신대학교
이민주(2002), 전남도청 + 5.18기념관,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 작품전시회, 동신대학교
박형민, 임어진(2002), 광주민자역사, 광주 지속가능한 개발과 건축 작품전시회, 동신대학교
손승광(2000.12), 광주 도심공동화문제와 공공시설 개선방향, 광주권연구제6호, 광주권발전연구소
유시중(1998), 도시사회학(Robert A. Wilson & David A. Schultz, Urban Sociology), 경문사, 서울